



글·사진: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전남 유산장 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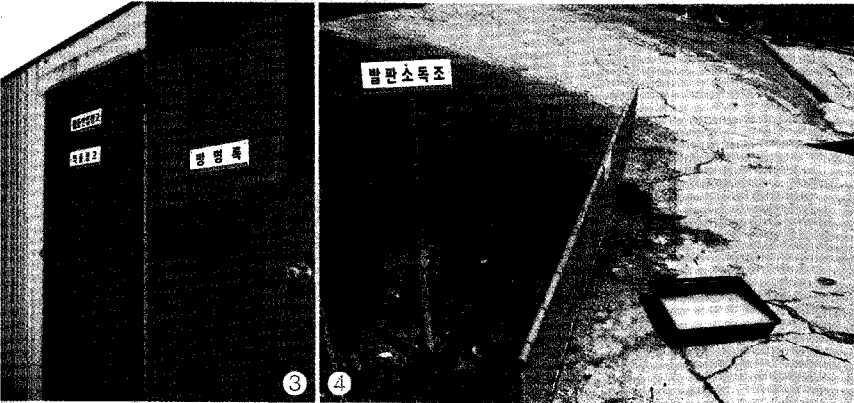
축산물HACCP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어섰고 농장단위 HACCP인증제가 시행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오리농장이 HACCP인증을 획득한 곳은 전국에서 단 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돼지를 비롯해 한우와 젓소, 육계, 산란계 농장의 경우 적게는 200개소에서 300개소 이상 HACCP 인증을 획득했지만 아직까지 오리업계는 HACCP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농장단위 HACCP의 경우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이미 많은 농가들이 HACCP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장단위에서 HACCP를 인증 받을 경우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안전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HACCP 인증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해 수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FTA 등 수입개방에 따른 무한 경쟁에서 생산단



①박성현 대표 ②친환경인증서 ③농장입구 출입자 소독실 ④농장입구의 발판 소독조 ⑤농장입구에 있는 저수지 ⑥농장현관

계에서부터 HACCP인증은 소비자들에게도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수입축산물에 비해 한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오리농장이 HACCP 인증을 획득한 곳은 아직까지 단 7곳에 불과하다.

전남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산 24번지에 위치한 유산장농원(대표 박성현)이 HACCP인증을 획득한 3개의 오리농장 중 하나로 지난 7월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더욱이 유산장농원은 HACCP인증에 앞서 전남지역에서 2번째로 무항생제 친환경인증까지 획득할 정도로 남들보다 한발앞서가는 농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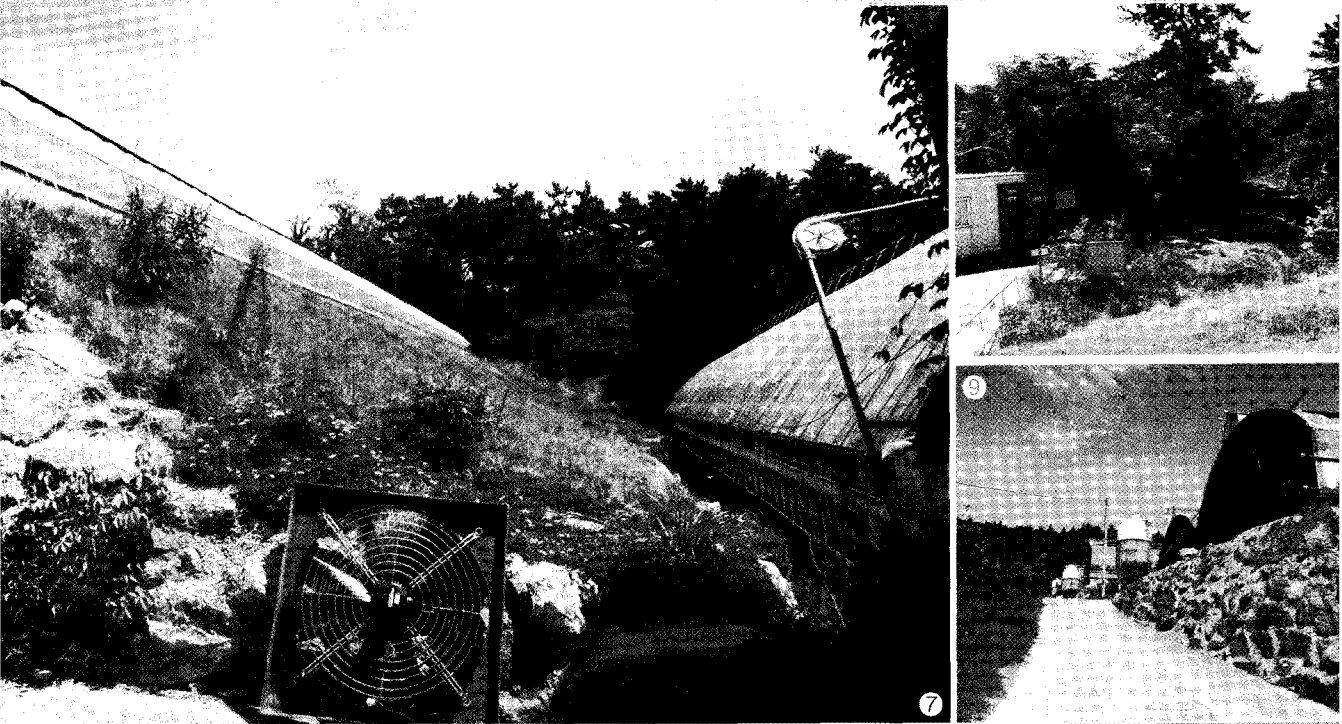
유산장농원의 박성현 대표가 오리업에 뛰어든 것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에서 직장생활과사

업을 하던 박 대표가 오리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오리산업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0여년전만해도 오리고기가 지금과 같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오리고기가 다른 육류에 비해 우수하고 소비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나주 영산포에서 본격적으로 오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오리 사육을 시작했지만 시련도 겪어야만 했다. 2003년 당시 축사를 임대해 오리를 키우던 박 대표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축사가 그만 무너져 내리고만 것.

축사는 무너져 내렸지만 오리에 대한 애정은 결코 무너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안정적인 사육을 위한 부지를 물색해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됐다.



● 계단식으로 축사를 배치해 환기가 잘 되도록 했다 ● 농장입구 ● 축사전경

유산장농원이 자리 잡고 있는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의 경우 주위가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영암군의 경우 오리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미암면의 유일한 오리농장으로 주변에 오리농장이 없어 질병 유입도 걱정 없을 정도로 청정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박성현 대표는 "남들보다 늦게 오리를 키우기 시작했지만 오리에 대한 열정은 누구에 뒤지지 않는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박대표의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7년도 남들보다 한발 앞서 친환경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듬해인 2008년도부터 HACCP인증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으며 이번에 HACCP인증을 획득하는 등 박 대표의 오리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얼마만큼

인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산장농원을 둘러보면 박대표의 노력이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유산장농원은 현재 1만8천수 사육 규모로 300평에서 400평규모의 2열 축사가 4동이 자리 잡고 있다. 각 축사별로 3중으로 된 자동개폐장치는 물론 강우시에도 마찬가지고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도록 했다. 또한 축사들은 모두 정남향으로 겨울철에도 축사전체가 햇빛이 비취지도록 나뭇대로의 노하우를 집적해 설계돼 있다. 박대표는 최근 2만수 규모로 농장을 확장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최소 2만수는 사육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박대표는 축사증축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허가가 나오면 곧바로 축사를 늘릴 계획이다.

***HACCP의 기본인 기록 관리는 몸에 밴 습관**

축사 옆에 위치한 집에 들어서면 한쪽 벽면의 책꽂이에는 그동안에 기록해 왔던 농장일기와 사육일지들이 빼



⑩삼중개폐장치로 축사전체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⑪농장안내문 ⑫출입자 방명록 ⑬HACCP 인증을 위한 농장일지 ⑭농장일지 ⑮박성현 대표 부부 ⑯오리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부터 보관해 온 농장일지들 ⑰자동개폐장치

곡히 쌓여 있다. 오리를 처음 키우기 시작할 때부터 일기형식으로 써오던 농장일지와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이후부터 작성해 오던 사육일지다. 오래된 농장일지를 보면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농장에서 발생한 중요한 일들을 적어놓아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습관에 밴 기록 관리는 친환경인증은 물론 HACCP인증을 받을 때도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 박 대표의 말이다.

박 대표는 "친환경인증을 받을 때도 그랬지만 HACCP 인증을 위해 준비할 때도 평소에 하던 기록을 형식에 맞춰 기록하는 것으로 바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며 "반드시 무슨 인증을 받기 위해 기록하기 보다는 농장을 운영하다보면 기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들에게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농장 만들 것**

박대표는 환갑을 훌쩍 넘긴 적지 않은 나이에 불과하고 아직 오리에 대한 열정은 젊은 축산인 못지않다. 특히 박 대표는 연말부터 농장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깨끗한 농장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이를 위해 농장 주변에 유실수는 물론 각종 꽃나무들을 심어 농장조경에서 부쩍 신경 쓰고 있다.

비단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장주변이 깨끗하면 오리들도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성적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박 대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도 구입했다. 젊은 사람들도 배우기 힘들어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 농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란다.

이처럼 유산장농원은 박 대표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오리 산업을 대표하는 농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